아콜루씨아

ΑΚΟΛΟΥΘΊΑ 따름

In This Issue

그리스성지연구소 개소와 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그리스 성지 연구소 출범에 대한 의미와 가치
송병학 이사장

1세기 그리스가 초기 선교의 중심인 이유
조동규 소장

그리스성지연구소

O. +30 210 996 8186
M. +30 694 496 1790
E. holylandgreece@gmail.com
A. Voriou Ipirou 58, Glyfada, 165 62, Athens. Greece
W. holylandgreece.com

그리스성지연구소!

신약성경에서 지명으로 된 성경책은 모두 9권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서 한 권이고, 터키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3권이지만, 그리스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5권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디도서는 그레데(크레타), 요한계시록은 밧모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로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사도 안드레, 사도 마가, 사도 누가, 디도, 디모데, 실라 등이 이 지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사도들과 교부들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땅 그리스에 성지 연구소를 개설하여 더 많은 성지를 찾아 알리려 합니다.

그리스 성지연구소는 고고학적 배경을 토대로 사도바울과 초대 교부들의 성지인 그리스를 중심으로 성서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2천년전부터 이어온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공유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계속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순례의 장소로...

이를 위해 북으로는 사모드라게섬으로부터 남으로는 크레타섬의 뵈닉스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모든 성지들의 숨은 스토리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성지에 대한 성서적, 고고학적 연구는 그리스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의 장소로 재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그리스 성지에서의 연구와 묵상을 한국 교회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나라 정신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성지연구소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성지

그리스성지연구소는 은혜로운 성지에 대한 드론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촬영한 성지에 대한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성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상으로 성지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현장감 있는 성지해설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lylandgreece.com/movie

그리스성지연구소 출범에 대한 의미와 가치

이사장 송병학 목사 (휘경교회 담임)

저는 2019년 안식년을 맞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탐사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 본토와 그리스에 속한 지중해 도서(島嶼)들에서 보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기독교 성지들이 그리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성지에서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나사로와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디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2천 년 전에 이분들이 남긴 신앙의 흔적 위를 걷고 읽고 보고 만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저의 신앙과 목회가 더 뚜렷해지고 생생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그리스 성지연구소를 기획하게 되었고 마침 그리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동규 목사, 김태연 목사, 김민수 박사와 연결되어 그리스 성지연구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 그리스 성지연구소의 기독교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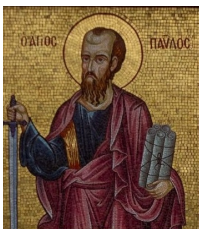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거룩한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복음선교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되었든 소아시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방향성이 로마제국 본토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시아에서 로마제국으로 향하는 복음선교의 여정은 부득불 중간지대인 그리스를 경유해야만 했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에는 여러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전도자들이 수고하며 다녀간 믿음과 선교의 흔적들이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그리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기독교 성지는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옛 로마제국 본토에 있는 성지들에 비해서 이제껏 별로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그리스 성지에는 이스라엘이나 로마에서처럼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독교 유적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가면서 쉬고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사역하던 현장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2000년 전 기독교 성도들의 그 뜨거운 땀방울과 숨결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2. 그리스 성지연구소의 기독교적 가치

현재 그리스에는 터키지역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기독교 성지가 있으며, 이슬람지역과는 달리, 초대교회 이후의 기독교 유적과 전통들이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서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선교여행 유적지) 사도 요한(밧모섬), 사도 안드레, 사도 누가, 나사로(구브로섬), 마가와 바나바(구브로섬), 디도(그레데섬), 디모데, 실라 등이 그리스에서 사역한 분들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성지가 그리스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 니고볼리, 빌라델비아,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겐그레아, 멜리데, 네압볼리, 아볼로니아, 뵈닉스 등등..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테오라 수도원과 아토스 수도원 외 다수의 비잔틴 수도원들이 그리스 곳곳에 남아서 옛 기독교 영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소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속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중심인물들의 삶과 믿음과 사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목사님들의 목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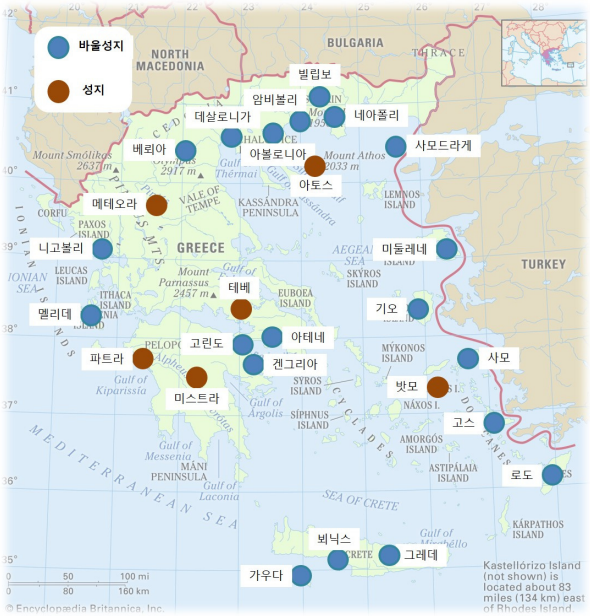
3. 그리스 성지연구소의 특화된 사역들

a. 성지자료의 제한없는 이용

현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저작권 시비문제로 인해 목회에 꼭 필요한 성지자료(사진 및 동영상)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님들은 설교와 성경공부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소는 후원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연구소가 보유한 성지연구자료를 맘껏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b. 성지여행에 대한 전문적 안내와 효율적인 서비스.

성지안내 및 교육은 성지 전문연구소에서 진행해야 배움과 은혜와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일반 여행사처럼 수익이 목적이 아니므로 여행사의 폐단을 원천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성지탐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별히 후원교회와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전문적인 성지탐사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성지들)

c. 한글 어학원 운영

현재 그리스에는 한류붐이 한창이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사역인데, 그리스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소는 김민수 박사님이 아테네에서 한글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리스 청년세대에게 한국을 전하는 한편, 한국어로 복음을 접하게 하는 사역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는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교회의 선교동력은 오늘날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역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의 대상은 복음의 열정이 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한국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기 그리스에 있는 기독교 성지들은 이곳을 찾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불붙게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세기 그리스가 초기 선교의 중심인 이유

연구소장 조동규 목사

사도행전에 따르면 신약의 교회는 예루살렘(행2:), 사마리아(행8:), 안디옥(행13:), 빌립보(행16:), 데살로니가(행17:), 고린도(행18:), 에베소(행19:), 로마(행28:), 서바나(롬15:18) 교회가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 골로새 교회가 있으며,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있다. 또한 베뢰아, 마케도니아, 구브로, 이에라볼리 등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각각의 교회는 자치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하나의 독립된 교회였다.

초기 교회들의 특징은 선교와 복음이 팽창하는 교회요 거듭난 자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교회였으며, 무엇보다 형제애가 있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또한 믿는 자들이 제자로 양육되는 거룩한 교회였다.

그 시대 교회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의 석방과 귀환에 관련된 페르시아, 헬라 문화 및 언어와 연관된 그리스, 정치적으로 예속되었던 로마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적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 로마의 통일로 하나의 문화권이 된 세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

로마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언어와 군사제도를 통일시켰고, 세제를 개혁했다. 특히 도로 개발을 통한 상업과 통신의 발달은 도시 문화를 꽃피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내륙의 도로망 확충과 함께 다양한 해로의 개척은 무역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연결과 소통가능성을 기반으로 복음은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합하여 5개의 총대주교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무명의 수많은 평신도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바울행전, 교회행전, 포괄적인 복음서, 사랑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이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취한 태도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행 16:1)

(네아볼리에 있는 사도바울이 환상을 보는 벽화)

이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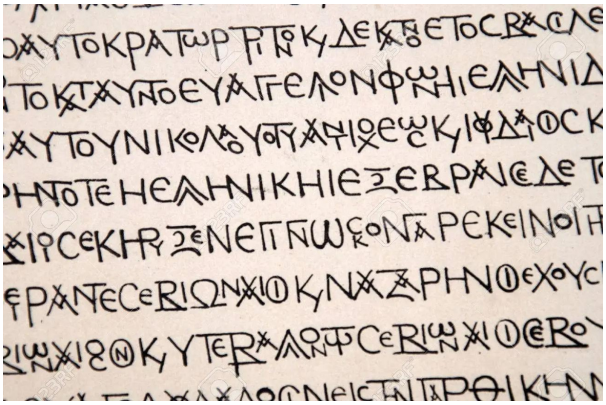
여기에서 «βοήθησον-도우라»는 말씀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παρακαλῶν-제발» 이라는 말을 통해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καὶ ὅραμα διὰ τῆς νυκτὸς ὤφθη τῷ Παύλῳ· ἀνήρ τις ἦν Μακεδὼν ἑστώς, παρακαλῶν αὐτὸν καὶ λέγων· διαβὰς εἰς Μακεδονίαν βοήθησον ἡμῖν.

이렇듯 밤 중에 마케도니아 남자(ἀνήρ)가 한 요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일대 전환한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 기독교 선교의 중심 지역, 특히 제2차 선교지역의 중심이 그리스가 된 것이다.

2. 코이네 헬라어가 로마제국의 공용어가 되어 국경을 넘어 언어가 통합

그리스가 선교의 중심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지중해의 중심 언어인 끼니(Κοινή - 코이네) 헬라어 때문이다.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

코이네 헬라어는 지역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편적 언어였다.
로마제국 시대에 그리스어는 아테네(Athens), 데살로니가(Thessaloniki), 델피(Delphi), 페르가몬(Pergamon), 에베소(Ephesus), 스미르나(Smyrna), 코스(Kos), 키오스(Chios) 등의 도시에서 사용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타민족들(이집트, 시리아, 갈리아, 이베리아)과 함께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공존했다.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그리스어는 로마 제국 동부 지역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언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로 사물, 행동, 생각,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를 말하며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들의 체계이고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코이네'가 대중들의 일상에서 사용한 보편적인 언어였다는 의미이며, 평범한 대중들의 언어로 신약 성서가 씌여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다.

그리스어 Κοινὴ(코이네)는 "공통의" 또는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낱말이다.

원래는 각지에서 모인 알렉산더 군대에서 사용하던 공용어를 뜻하는 말이며, 그의 사후에 알렉산더의 뒤를 이은 각 지역의 군주들과 시민들이 계속해서 코이네를 사용했다. 코이네는 고대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부터 셀레우코스 제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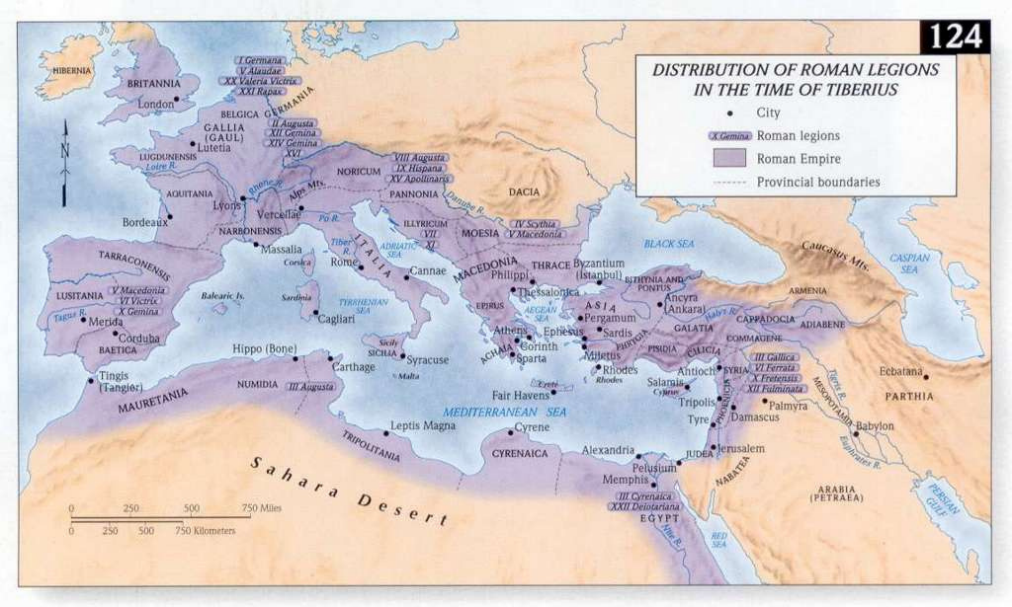
이후 지중해 연안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로마제국의 점령 이후에도 라틴어보다 더 넓은 지역인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복음(Ευαγγέλιο) 이라는 용어는 «καλά νέα», «χαρμόσυνη είδηση», «χαρούμενη αγγελία».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광고"를 의미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리스어로 신약성서의 처음 네 책을 기록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그야말로 흩뿌려진 씨(διάσπαρτοι σπόροι)가 되어 세상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가는 곳 마다 복음을 전하였다. 기독교의 점진적인 부상과 함께 새로운 문학 장르가 만들어졌으며 그 가치는 추상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복음서는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새로운 문학 장르가 가져온 '기쁜 소식'은 세상의 구조와 인간의 위치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나, 성스러운 개인의 전기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복음서는 역사적 공간과 시간(1세기 초반 30년 동안의 로마 유대)에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배치될 수 있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역사적 사건이 이처럼 보편적이고 기념비적인 중요성을 획득한 것은 고대사에서 처음이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언급하는 데 관심을 가진 역사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추종자들과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리스어로 들려지고, 또한 이해되었다.



그리스가 선교의 중심이 된 두개의 힘

1. 로마의 통일로 하나의 문화권이 된 세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
2. 코이네 헬라어가 로마제국의 공용어가 되어 국경을 넘어 언어가 통함

그리스성지연구소가 진행하는
그리스 성지순례 및 세미나

- 순례일시 : 2022년 하반기 단 1회
- 순례인원 : 35명 한정
- 순례장소 : 아테네, 크레타(이라클레온, 뵈닉스), 산토리니, 네압볼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뵈레아, 메테오라, 니고볼리, 파트라, 고린도, 겐그리아 등
- 순례일정 : 11박 12일 (아래 지도 참조)
- 성지강의 : 매일 2시간씩 성지에 대한 강의 및 토론 진행
- 순례길 탐방 : 사도바울이 네압볼리에서 빌립보로 걸어 가셨던 '비아 에그나티아'와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로 걸으셨던 옛길을 걸으며 묵상하는 순례길 체험
- 이사진과 후원회원에게는 우선 참가 및 특별 할인 제공

성지연구소만의 특별함

- 크레타섬(사도바울, 마가의 선교지이자 그리스문명의 출발지) 순례
- 산토리니 문화 탐방
- 니고볼리와 파트라 등 일반적 성지순례에서 가기 어려운 성지를 모두 방문
- 성지연구소에서 여행의 모든 것을 책임지므로 편하고 안전하며 은혜로운 진정한 성지순례를 만끽함

세계문화 1번지 그리스에 전해지는 한국문화의 힘

전문연구위원 김태연 목사

저는 1995년 12월의 마지막 날 고대 그리스 철학과 초기 교부들의 삶이 숨쉬는 그리스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그리스어 강좌를 들으면서 아테네 대학교에서 피타고라스 철학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그리스에서 공부하고자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고전이 그리스 문화에 바탕하고 있어서 그러한 문화적 영향력에 이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가 당시의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리스에서 공부하는데 하등의 도움을 준 것도 없지만, 고대로부터 이어진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힘은 저의 사고 속 기저에 남아 그리스를 매력 가득한 환상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알지 못하는 나라였고, 그리스인의 10명 중 10명은 저에게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잘 모르는 나라였지만 혹시 아는 그리스인들도 '아, 김정일' 이라고 외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돌아 25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그리스에서 전혀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문화는 유럽 문명의 출발점이자 세계문화 1번지로 통하는 그리스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케이팝과 기생충으로 알려진 한국영화, 그리고 오징어게임으로 전 세계를 흥분시킨 한국드라마의 힘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크레타섬에서 초기 그리스어 알파벳이 만들어졌고, 미케네 시대에 현대적 의미의 문자가 유럽에서 최초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는 전 유럽에서 문자의 시대를 열고 그리스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가진 그리스어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큽니다. 최근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 부족이 사용한 것을 보면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데,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비롯한 수많은 언어의 어머니 격인 그리스어를 가진 그들의 자부심은 두말할 여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인들이 최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대학교와 데살로니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아테네에 있던 한인 2, 3세를 위한 한글학교에는 그리스인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개인과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한글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보물 1호가 있는 파르테논 신전 한복판에 세우는 거대한 이정표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어떻게 25년 만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리스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되물어 봅니다.

많은 정보방송과 학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케이컬처의 성장에 대하여 저마다 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초고속 인터넷 강국, 문화를 경제에 접목시키는 힘,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국민성, 빨리 빨리 문화, 한국인이 본래 가진 흥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일리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리스와 관련된 내용은 없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그리스가 전 세계에 선물한 가장 큰 보따리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2600년 전부터 그리스의 대표적 폴리스인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실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 중에서 오직 그리스만 민주주의를 했다는 사실 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그리스가 멸망한 이후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다시 세상에 나온 민주주의는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기초 이념이 된 제도입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변화 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1조 1항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민주정이 있었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민주주의를 말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문화의 진정한 힘이 '민주주의'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3개국을 비교해 보면 자명해 보입니다. 90년대 세계 1위 국가를 꿈꾸었던 일본 문화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던 일본 문화는 현재 보잘 것 없는 경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중국은 문화공정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는 전혀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비난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자 인권 탄압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하나의 당이 거의 무제한 집권하는 일본은 정상적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때로는 싸우고, 반목하고 시끄러워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민주주의적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그 결과 자유로운 창작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전 세계에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한 그리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문화 1번지에 한국문화를 더 깊이 뿌리내리는 사역에도 온 힘을 쏟아 사랑하는 땅 그리스가 복음과 한국문화로 더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성지연구소에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성지연구소 후원과 후원회원 혜택

- 그리스성지연구소 웹사이트에 있는 영상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사진과 후원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설교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에 창간한 『아콜루씨아』(계간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면 그리스성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특별 행사와 각종 이벤트에 초청됩니다.

- 이사진은 아테네에 위치한 그리스성지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지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글리파다 지역에 위치해서 영육의 충전과 그리스 성지순례에 최적화 된 장소입니다.

- 그리스성지연구소에서 1년에 단 한번 시행하는 '성지순례 및 세미나'에 우선 등록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이사진이 속한 교회가 그리스를 성지순례할 경우, 최적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성지순례에 대한 무료 자문을 해드리고, 예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와 터키 등에서 성지순례를 가장 잘 하는 가이드를 연결해 드립니다.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성지연구소 홈페이지
holylandgreece.com/donation

→

신용카드(체크카드)
페이팔(Paypal)

링크를 클릭하시면 후원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계좌로 송금

→

예금주 : 그리스성지연구소
하나은행 : 278-910028-00304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약정서

성 명		**교회이름**	
이 메 일			
주 소			
전화번호		**담임목사**	
개인후원		**교회후원**	
정기후원	1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기타 ( )		
특별후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기타 ( )		

ΑΚΟΛΟΥΘΊΑ | 창간호 | 창간일 : 2021.12월.31 | 발행일 : 2021.12월.31

그리스 성지 연구소
Greek Holy Land Institute
주소 : VORIOU IPIROU 58, GLYFADA, ATHENS, GREECE
전화 : +302109968186 모바일 : +306944961790
WWW.HOLYLANDGREECE.COM